

사하배움마당

제 17 호

발행 사하구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전화 220-4801~6 팩스 220-4809 발행일 2019. 2. 20.
사하배움마당은 사하구 평생학습 구민기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나누는 평생학습 사하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3월 개강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3월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신규회원 모집은 2월14일부터, 기존회원 모집은 2월18일부터 개강일까지 선착순이다. 온라인 접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총 22개로 ▲직업능력 8개 강좌 ▲인문교양 7개 강좌 ▲문화예술 3개 강좌 ▲시민참여 4개 강좌이다.

사하구가 지난해 10월 평생학습계좌제의 평가인정기관으로 인정되었다. 이번 상반기부터 평생학습계좌의 평생학습이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에는 책 모양의 그림이 표시되어 있다. 직업상담사 2급 국가자격과정, 네일아트 국가자격과정을 비롯한 몇 개 강좌들이 있다. 수업이 2주·15시간 이상 운영되는 과정이 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다. 평생학습이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수강생은 신청서를 내면 평생학습계좌제에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평생학습이력은 진학과 직업정보 획득, 취·창업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직업상담사 2급 국가자격과정, 네일아트 국가자격과정, 바리스타 2급 자격과정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기강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상담사 2급 국가자격과정은 필기시험 대비반에 이어 실기시험 대비반도 개설했다. 공신력 있는 자격과정의 경우 수업이 끝난 뒤에도 동아리 모듬활동을 통해 재능기부와 취·창업의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 바리스타 자격과정은 수업 특성에 맞는 장소를 제공받아 최소한의 재료비를 내고 수강하는 장점이 있어 인기가 있다. 반려동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에 맞추어서 새롭게 반려동물관리사 과정도 추가되었다.

시민참여 교육으로 어린이 환경교육 체험교실도 눈에 띈다. 2회 2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은 물, 쓰레기, 자원재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미세먼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미세먼지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강좌이다. 각 회마다 예방의학과 전문의, 환경연합 소속 강사가 나서 전문적인 지식도 전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실태에 따른 대응 방법이나 식생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건강한 먹을거리도 알려주는 알찬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공단이 많아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사하구의 특성에 맞춘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일상을 카메라로 담은 노하우 수업은 다양한 사진을 찍는 이론과 외부 출사를 통한 실습을 가진다. 오늘 밥은 내가 할게 수업은 오직 남자만 수강이 가능하다. 간편하지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다 라는 목표에 맞춰있다. 왕초보 남성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메뉴로 돈육두루치기 외 5가지 요리가 있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 220-4117

<http://www.saha.go.kr/edu>

김미연 평생학습 구민기자
01hanthis@naver.com

모두가 행복한 살아있는 교육현장

2019년에도 사하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펼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사하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을을 배움터로 활용하는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펼친다. 다행복교육지구란 지역과 학교가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소통하고 배움을 즐기는 교육 체험을 하면서 창의적 인재로 자라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사하 다행복교육은 4개 분야, 17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학교 '밖' 마을학교, 학교 '안' 마을학교와 지역특화 교육브랜드 창출 세 가지를 중점 소개한다.

먼저 학교 밖 마을학교는 체험형 수업으로, 마을 곳곳이 배움터가 된다. 학생들은 다행복교육센터에서 제작한 '사하마을 교과서'를 활용하여 문화재탐방, 생태체험, 사하역사학교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중학생이 지역 내 40여 곳의 체험처를 선택해 소집단으로 직업체험(인터뷰)을 할 수 있는 다행복 마을진로여행 프로그램도 있다. 이를 위해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진로코칭 과정을 수료한 학부모사

포터즈가 인솔하고 이동버스도 지원된다. 작년에는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아이들의 공연과 체험 부스로 진행되었던 문화예술축제가 올해는 삶의 현장인 마을로 나와, 사하구 내 3권역에서 다행복 학(교)동(네)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된다.

다음으로 학교 안 마을학교는 학교 선생님들과 마을의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을 지원한다. 동아대 학생과 초·중 학생이 소규모 모듬을 이루어 교과학습을 하는 대학생 어깨동무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이 밖에 학교 내 스포츠 동아리 지원도 한다. 마을연계 교육과정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초·중 7개교가 참여하며, 학생 주도로 학교 공간을 혁신하거나 학교와 마을이 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 교육브랜드 창출 사업은 전체의 자연환경과 평생학습도시를 기반으로 한 사하구만의 특별한 교육이다. 찾아가는 창의수업은 우리 마을 교육컨텐츠 발굴사업으로 선정된 16개의 프로그램을 다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학교별로 신청하면 된다. 사하 마을아지트는 마을



활동가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며, 초등돌봄교실 또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한다. 작년에 보림행복센터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는 두송문화센터와 물운대복지관 두 군데가 추가된다. 입시 공부로 바쁜 고등학생을 위해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고등명사 특강이 그것으로써 올해 새롭게 실시한다. 사하 현장체험버스 운영이나 해양대학교를 거점센터로 하여 해양스포츠 체험을 하는 것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

문의 : 사하 다행복교육지원센터 ☎ 220-4931~6

<http://www.saha.go.kr/happyedu>

김미영 평생학습구민기자
ivy1201@hanmail.net

기획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은 여기!

사하구에는 17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사하배움마당>은 올 한 해 동안 17개의 작은도서관을 가까운 지역끼리 묶어 6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첫 회에 소개할 곳은 감천1,2동과 구평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다.

감천1동 푸른누리 작은도서관은 맑고 선명한 빛깔의 '푸르다'와 세상이라는 '누리'의 합성어로 싱그럽고 활기찬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칭이 붙여졌으며 사하구에서 11번째로 문을 열었다. 1층에는 어린이 열람실, 2층에는 일반 열람실과 강의실이 있고, 소장도서는 1만7백여 권이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학부모, 취업준비를 하는 2,30대가 대다수이다. 겨울방학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나는 어린이 화가2, 재미있는 만들기 교실, 3D펜 창의융합 체험교실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신나는 퍼포먼스 미술놀이가 있다.

감천2동 햇불 작은도서관은 17번 버스 종점 건너편의 이정표를 따라 오르막길을 조금 오르다 왼쪽으로 꺾어 들어간 곳에 있다. 주택을 개조하여 만든 도서관으로 사하구에서 첫 번째로 개관하여 십년이 되었지만 책읽기 쾌적한 공간이다. 1만2천여 권의 도서를 갖추고 있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이라 아이들이 책을 보며 엄마를 기다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창의력이 쑥쑥 똑딱이 창의공작소, 동화와 함께하는 과학실험놀이(B), 유아를 대상으로 한 동화와 함께하는 과학실험놀이(A)가 있다. 햇불 작은도서관의 가장 인기 있는 강좌는 만들기 수업인 똑딱이 창의공작소이다.

구평동에는 작년 4월에 문을 연 구평예들작은도서관이 있다. 1동 1도서관 조성 목표로 17번째로 지은 작은도서관이다. 구평의 예들은 구평(舊平)동의 한자를 우리말로 풀어 쓴 것이다. 가장 최근에 지은 도서관답게 일층 전체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며 도서관 바깥에 마련된 정자와 엄마가 직접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유아자료실, 각 방마다 비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시설, 찻집을 연상케 하는 예쁜 테이블 세트 같은 다

른 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시설이 많이 있다. 소장도서는 8천8백 권으로 모두 새 책이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혼자 하는 방학숙제, 어린이 건축교실, 자연생태동화 팝업북이 있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동물농장 팝업북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작은도서관은 분기별로 강좌가 진행되고 있으며, 방학 때는 특강이 마련되고 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고 한 빌게이츠의 말처럼 나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동네의 작은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

문의 : 감천1동 푸른누리 작은도서관 ☎ 202-4466

감천2동 햇불 작은도서관 ☎ 203-0543

구평 예들 작은도서관 ☎ 261-5274

천종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tagore0308@hanmail.net



01 감천1동 푸른누리 작은도서관



02 감천2동 햇불 작은도서관



03 구평 예들 작은도서관

사랑이 넘치는 행복센터

장애인 복지의 요람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감천고개의 큰길가 밑으로 난 좁고 미로 같은 경사진 길을 내려가자 하얀 건물이 나타났다. 손에 닿을 듯 푸른 감천만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이 사하구 장애인들의 행복터전인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2000년 12월 개관하여 지역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운영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성장 발전하여 왔다. 30여명의 사회복지사와 직원들이 1만7천5백 명의 사하구등록 장애인과 일일 150~200명의 이용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1층에는 운동지원실, 언어치료실, 인지치료실과 대중목욕탕이 있다. 2층에는 물리치료실, 미술치료실, 상담실, 작업지원실과 식당 그리고 3층에는 감각통합치료실, 프로그램실, 주간보호센터, 강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인들의 편의와 이동하는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이 배치되었고 방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용하는 장애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이용자 교육, 지역자원개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담당하는 기획·홍보사업팀과 5개 사업팀, 주간보호센터가 있어 사하구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서 언제든지 이용자가 문의와 상담을 통하여 원하는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2019년 에는 공예교실 수수공예방, 난타교실 행복두드림, 원예교실, 하모니카 교실, 방과후 교실, 아동·청소년 계절학교가 준비되어 있다. 또 소수집단사회참여 프로그램 '문화별천지', 국학기공,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편편놀이교실', 노래교실 '하하호호 교실'이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사하문화 한마당의 노래자랑과 작품발표회, 부모 간담회, 장애아동 가족나들이 등의 행사가 열린다.

김도연 기획·홍보사업과장은 "매년 사업공청회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만족도조사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들의 관심에 보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장애등급폐지 실행에 대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증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지관에서 이용자들에게 행복한 터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행복을 일구는 터전이 되기 바란다.

문의 :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 262-2461

<http://www.saharc.or.kr>

박강균 평생학습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

<사하배움마당> 기자단 새해인사

새 단장 새 각오

<사하배움마당>은 2015년 창간준비호를 시작으로 올해 17호에 이른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서툴지만 성실하게 걸어왔다. 2019년 첫 신문을 기점으로 제호를 새롭게 한다. 보다 열린 마음으로 구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서다.

사하구 평생학습이 구민들의 사회참여와 여가생활, 교육문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는 길잡이라면 그 중심에 <사하배움마당>이 있다고 자부한다. 평생학습 구민기자 17명은 직접 발로 뛰며 평생학습의 현장과 정보를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기자단은 새해를 시작하며 한 목소리로 각오를 다진다. 보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더 열심히 참여하여 구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하배움마당>이 평생학습 전문지로서 구민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항상 곁에 두고 싶은 신문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사람, 기관, 동아리를 아우르는 <사하배움마당>은 사하구의 또 다른 자부심이며 자랑이 될 것이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아름다운 그대

나눔부터 참여까지 실천하는 사람 권인선 씨를 만나다



“상찬이 엄마, 봉사 좀 안 해 볼래?”
지인의 권유가 권인선(58세·하단동) 씨를 봉사의 길로 접어들게 했다. 40대 초반부터 하단 시장에서 분식집을 20년간 운영하며 음식 나눔을 시작했다. 처음엔 권인선 씨가 김밥을 싸 주면 지인이 장애인에게 갖다 드렸다고 한다. 권인선 씨는 분식집을 그만둔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지금껏 음식 나눔 봉사는 이어지고 있다.

권인선 씨가 복을 치게 된 동기는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친구의 권유로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사물놀이를 배웠다. 배우는 도중 풍물 선생님의 권유로 복을 치게 됐는데 그녀는 복 치는 것이 즐겁다고 한다. 권인선 씨가 활동하고 있는 ‘모듬북 아라’는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같이 배웠던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자고 해서 3년 전부터 결성되었다. 권인선 씨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회



장을 맡고 있다. 재능기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권인선 씨의 난타 봉사는 더욱 활기를 찾았다. 다대포 분수대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우연히 지인이 휠체어를 타고 관람하는 걸 봤다. 장애인도 마음 놓고 관람 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비우고 채우

고 나누는 장애인 행복 자선콘서트’를 하게 되었다.

권인선 씨는 봉사 정신을 인정받아 사하구가 주는 상을 3개나 받았다. 평생학습을 함께하며 공헌활동에 일일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모듬북 아라 단체 봉사상, 장애인이 추천하는 공동 생활가정 푸른집 추천상,

문화예술 유공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얼굴 알려지는 게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스럽다며 미소를 지었다.

권인선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 YWCA센터와 함께 재래시장 몇 군데를 돌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확인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그밖에 창원지방법원 청소년 선도를 위한 보호위원도 맡고 있다. 그만큼 자기의 즐거움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공식적인 봉사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 “모든 사람이 봉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이웃과 정을 나누듯이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져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겨울방학에 즐기는 가상현실세계 내 손으로 만드는 ‘AR-VR’ 과학교실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방학을 맞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강화를 열었다. 대부분 부모의 신청으로 학생이 수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학생의 관심으로 접수부터 인기가 많은 강좌가 있었다. ‘내 손으로 만드는 AR-VR 과학교실’이 바로 그것이다.

과학교실은 AR, VR,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AR수업은 AR(증강현실)의 원리와 활용카드보드를 만들어 아이들이 VR(가상현실) 촬영 콘텐츠를 만드는 수업이었다. AR 활용 콘텐츠도 만들어 앱을 통해 색칠한 자동차가 움직이는 수업을 하였다.

마지막 수업은 OHP필름을 이용해 간단한 피라미드 모양을 만들고 빛의 간섭현상을 이해하고 홀로그램 영상을 만드는 수업이었다. 연예인 콘서트의 화려한 무대기술, 바닥에서 갑자기 고래가 솟아오르는 영상을 보며 홀로그램 공연기획, 홀로그램 아티스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있었다. 홀로그램은 형태는 없고 만져지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가상현실을 말한다. 영화 ‘아이언 맨’, ‘아바타’가 홀로그램을 이용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위조방지를 위해 돈이나 카드, 포장지에도 홀로그램을 적용한다. 과학교실에 참여한 학생들도 좋아하는 영화가 나오자 더 관심있게 집중하였다.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닌 인체, 태양계의 교육으로 접목해 진행하였다.

수업 마지막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상현실기술 아이디어를 이야기 나누었다. 고양이가 되어보거나 자동차 만들기, 게임 속 아이템 만들기, 집을 만들어 꾸미는 의견이 나왔다. 과학교실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3차레 수업으로 가상현실세계를 다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충분히 즐거운 시간이었다.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을 알아가고 진로도 생각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수업 진행시 앱을 깔아야 하고 스마트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중간중간 부모의 인증확인을 위해 전화하는 일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새로운 영역으로 마련된 수업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한다면 서로 이해도 높이고 세대 간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제3기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2019년 상반기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 교육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는 여성이 자기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열리는 여성리더 양성 교육이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해 올해도 신규3기 대상으로 15회 차 수업을 진행한다.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2주간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방문 접수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사하구에 거주하는 여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으로 모집한다.

3월 14일 ‘이토록 멋진 평생학습’ 강화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씩 진행한다. 지난해에도 많은 수강생이 몰려 인기가 있었던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는 여성리더로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반기에는 1·2기를 합쳐 심화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사하구평생학습과 ☎ 220-4804
http://www.saha.go.kr/edu

김필봉 평생학습 구민기자
shjpbun@naver.com naver.com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안내

회차	일자	구분	강좌내용	강사명	비고
1	3.14.	오리엔테이션	이토록 멋진 평생학습!	김정원	개강식
2	3.21.	여성리더십	여성, 인문학에서 자존과 행복을 배우다	이안나	
3	3.28.	건강	한방으로 보는 여성 건강관리와 성인병 예방법	윤현민	
4	4.04.	교양	스마트폰으로 SNS 즐기기	이준옥	
5	4.11.	상식	우리집 말끔히, 정리수납	김현옥	
6	4.18.	경제	노후를 위한 재테크	최충환	
7	4.25.	시민의식	위기탈출-체험	-	시하소방서 안전체험장
8	5.02.	현장학습	현장체험학습	-	
9	5.09.	시민의식	여성이 살맛나는 도시가 매력적인 도시다	서종우	
10	5.16.	법률	실무중심 생활법률 이야기	김성미	
11	5.23.	교양	잘 풀리는 우리 집 풍수 인테리어	김양희	
12	5.30.	취미소양	토탈공예(천연제품 만들기)-체험	김수진	재료비(5,000원) 별도
13	6.13.	교양	행복한 소통법	유재희	
14	6.20.	인문	유배, 절대고독 속에 나를 발견하다	김중희	
15	6.27.		- 수료식 -		



한글로 자원봉사 꽃 피우다

어르신과 함께 성장하는 동아리 '사하문해'



뒤늦게 글을 깨친 어르신의 뒤에는 동아리 '사하문해'가 있다. 묵묵히 그리고 열렬히 어르신들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사하문해는 지난해 7월 다대도서관행복학습센터에서 문해지도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이들 중 약 20명의 회원이 한글 봉사의 뜻을 모아 동아리를 만들었다. 이들 모두는 문해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한글 전문가이다.

동아리 강사는 주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그리고 경로당에서 어르신에게 한글을 알려주고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 글을 몰라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까지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도 따른다. 동아리 회원 김종출(64세·좌2동)씨는 "멀리서 강의하러 오지만 재능기부하는 일이 보람되고 어르신들과 함께 나도 성장하는 것 같다. 수업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그 모습이 귀엽고 몽클하다". 고 말했다. 동아리 회원들은 수업할 때 어려웠던 점을 공유하고 강의 방법도 서로 나누는 강사로서 면모를 점점 보이고 있다. 한다는 (46세·다대동) 총무는 "동아리활동을 하면 소속감도 생기고 서로 공감할 수 있어 힘이 더 난다.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다지게 된다".라며 동아리활동의 좋은 점을 말해주었다.

올해 1월 사하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사하문해' 정기모임이 있었다. 2018년 7월에 결성하여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모임을 해오고 있다. 동아리 결성한 기간은 비록 짧지만 그 만큼 더 열정적이

고 봉사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동아리가 서로 도와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은 2019년의 첫 모임인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올해는 문해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을 더 많이 알아보고 개척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로당에서 강의하는데 환경이 좋지 않아 힘이 들었다는 경험담도 있었다. 봉사활동인 만큼 관에서도 지원을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표했다. 각자 활동하며 나온 경험과 의견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회원들의 모습이 활발해보였다.

때론 힘들어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수업 시간마다 어르신들이 고마워하는 마음과 배움에 대한 갈증이 다시 힘을 내게 만든다. '사하문해'는 문해교육이 단순한 문자해독이 아닌 어려운 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하문해 회원들의 순수한 열정이 더 많은 교육현장에서 펼쳐지길 바란다.

김정숙 평생학습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평생학습

2019년 사하구 행복학습센터는 예년과 달리 센터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서 프로그램 2개씩 운영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감천1동 행복학습센터는 중장년층 취미교양특화 프로그램 '펜으로 그리는 풍경'이 3월 22일 열린다. 회화나무

작은도서관에서는 '책추교정 프롬테라피'를 3월 18일 개강한다. 그 외 신평 1동은 저소득 아동계층, 신평 2동은 중장년 웰니스, 장림 2동은 문화예술, 다대도서관은 인문교양으로 행복학습센터별로 특화된 강좌들이 운영된다.

문의 : 평생학습과 220-4806

센터명	프로그램명	대상	기간	시간	운영장소	비고
신평1동 행복학습센터	행복을 노래하는 우쿨렐레	12명	3/5~6/25(화)	15:30~17:00 (17회)	노티나무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
		12명	3/6~6/26(수)	16:00~17:30 (17회)	동매사랑 지역아동센터	
신평2동 행복학습센터	엑티브시니어 노인운동교실	15명	3/18~6/17(월)	10:00~11:30 (12회)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
	생활일발견 (나를 치유하는 글쓰기)	15명	3/19~6/4(화)	14:00~16:00 (12회)		교재비 1만8천원
장림2동 행복학습센터	박물관에서 찾는 인문학	20명	3/12~5/28(화)	10:30~12:30 (12회)	장림수물 작은도서관	교재비 1만원
	캘리그래피 강사양성과정	20명	3/20~6/5(수)	10:30~12:30 (12회)		재료비 3만원
감천1동 행복학습센터	펜으로 그리는 풍경	20명	3/22~6/7(금)	14:00~16:00 (12회)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
	왕초보 스마트폰 실생활용	20명	4/3~6/19(수)	14:00~16:00 (12회)		-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행복학습센터	책추교정 프롬테라피	20명	3/18~6/10(월)	10:00~12:00 (12회)	과정4동 행정복지센터	재료비 1만원
	클레이아트 2급자격증반	20명	3/19~6/4(화)	10:30~13:30 (12회)		재료비 7만원
다대도서관 행복학습센터	행복한 자녀를 위한 하브루타 독서법	30명	3/15~5/31(금)	10:00~12:00 (12회)	다대도서관	-
	팝업북지도사 양성과정	30명	3/27~6/12(수)	10:00~12:00 (12회)		재료비 4만5천원

※ 강좌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생태체험은 사하자연학교에서

사하자연학교가 7년째를 맞이했다. 처음 4개 코스로 시작해서 지금은 7개의 코스가 개발되어 운영 중이다. 참여도도 높아졌다.

사하자연학교는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생태해설사 과정을 통해 양성된 '생태고우니'가 직접 물운대와 승학산 곳곳을 다니며 체험에 적합한 곳을 개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다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수업까지 확대되었다. 초등학교의 반응이 좋아 올해는 안전한 생태체험을 위해 차량 14대를 지원받게 되었다.

사하자연학교는 3월부터 6월까지 50회로 운영될 계획이다. 화·토요일 오전 10~12시에 물운대와 승학산 일대에서 진행한다. 화요일은 어

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기관 위주로 진행하고 토요일은 가족단위로 진행한다.

올해는 생태고우니 4기가 주강사로 활동한다. 안은정 (41세·다대동) 강사는 "사하구는 산 바다 강이 함께 있어 사람들이 자연과 쉽게 만날 수 있어서 좋다. 사하자연학교에 참여한 가족들이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신청은 2월26일부터 선착순 마감이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과 ☎ 220-4804
<http://www.saha.go.kr/edu>

손현아 평생학습구민기자
ssnyen@hanmail.net

물운대 자연학교				
	가족탐방(토요일)		기관신청(화요일)	
3월	3.30.	곰솔길(오전)	3.19.	곰솔길(오전)
4월	4.6	산새길(오전), 바위길(오후)	4.2.	산새길(오전)
	4.13.	곰솔길(오전), 솔길(오후)		
	4.20.	산새길(오전), 파도길(오후)	4.23.	곰솔길(오전)
	4.27.	갯바위길(오전)	4.30.	산새길(오전)
5월	5.18.	산새길(오전)	5.14.	갯바위길(오전)
6월	6.1.	생태길(오전), 생태길(오후)	6.11.	생태길(오전)

승학산 자연학교				
	가족탐방(토요일)		기관신청(화요일)	
3월	3.23.	물소리길(오전)	3.26.	쑥소리길(오전)
4월	4.20.	물소리길(오전)	4.9.	쑥소리길(오전)
		물소리길(오후)		
	4.27.	물소리길(오전)	4.16	쑥소리길(오전)
5월	5.11.	물소리길(오전)	5.7.	쑥소리길(오전)
			5.21.	쑥소리길(오전)
6월	6.8.	물소리길(오전)		
		물소리길(오후)	6.4.	쑥소리길(오전)